

국별 리포트

네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47천 Km ²	G D P	162억 달러 (2010년)
인구	2,985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542달러 (2010년)
정치체제	공화제	통화단위	Nepalese Rupee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 (달러당)	73.2 (2010년 평균)

- 네팔은 인도 북부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으로서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임.
- 전통적인 농업국으로 가내생산을 통해 주로 식물, 의류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GDP의 약 35%를 차지하는 농업 생산량이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침. 2008/09년 몬순의 피해로 농업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4.9%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농업 부문이 경제성장세를 주도하여 2009/10년에는 소폭 증가한 5.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06년 공산 반군과 정부 간 평화협정 체결 후 2008년 5월 왕정이 폐지되며 총선,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어 정국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며, 정치적 발전이 향후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3.4	6.1	4.9	5.0	4.5
재정수지/GDP	-1.5	-1.3	-3.0	-1.9	-1.4
소비자물가상승률	6.0	11.0	11.6	10.0	7.5

자료: IMF 및 EIU.

□ 비농업 부문의 둔화로 경제성장률 하락세

- 네팔은 농업 부문이 전체 GDP의 35%를 차지하고 전체 근로자의 대부분이 농업 부문에 종사함에 따라 동 부문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2006/07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농업 부문 성장률이 미미하였으나, 2007/08년에는 강우, 일조량 등의 기후조건에 힘입어 주요 농작물인 쌀 수확량이 확대되는 등 농업 부문의 성장으로 2007/08년 경제성장률이 7년만의 최고치인 6.1%를 기록하였음.
- 2009년 발생한 몬순의 피해로 농업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2008/09년 경제성장률이 4.9%로 크게 감소함.
- 몬순의 피해를 극복하고 농업 부문이 경제성장세를 주도하여 2009/10년에는 이전 회계연도보다 소폭 증가한 5.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전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이 둔화되어 2010/11년 경제성장률은 4.5%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세수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낮은 세금 징수율과 세수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석유 제품에 대한 과도한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네팔 석유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네팔석유공사(Nepal Oil Corporation: NOC)는 석유 전량을 인도석유공사(Indian Oil Corporation: IOC)에서 공급받고 있음. NOC가 석유를 수입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대신, 정부는 수입가와 판매가의 차액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08/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어 재정적자의 GDP대비 비중이 GDP의 3.0%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제 개혁 등 정부의 세수확대 노력으로 2009/10년 중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9%로 다시 감소함.

□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 2007년 인도 루피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인도 루피화에 연동된 네팔 루피화의 가치 또한 상승하여 수입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낮아진 6%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 이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 상승 및 정부의 석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 이상을 기록함. 특히 2010년에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여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1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

- 농림수산업은 2009/10 회계연도 기준으로 네팔 전체 GDP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1970년대의 약 70%와 비교해 볼 때 크게 감소한 수준이나, 아직도 전체 노동력의 80% 가량이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등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09년 기준 6.4%에 그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정치 불안 외에도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협소한 국내소비시장 및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의한 해상운송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높은 대외원조 의존도

- 네팔은 정부의 개발목적 예산의 70%를 포함해 매년 총 예산의 약 20%를 대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음.
- 꾸준히 이어지는 대외원조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치안상황,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개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주요 원조기구인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은 네팔 정부에 대외 원조기금 사용의 투명성, 집행의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일자리 부족과 경직된 노동법

- 청년층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기록함. 특히 도시지역은 인구 유입 증가로 인해 실업난이 더욱 심각한 실정임.
- 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경직된 노동법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됨.

나. 성장 잠재력

□ 세계적인 관광자원 보유

- 네팔은 해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8좌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이 서비스분야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총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은 정치 안정에 따라 크게 영향 받고 있음. 특히 2006년 11월 공산반군과 정부와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총선, 대선 등을 거쳐 새로운 정부 구성의 기틀이 마련되는 등 정국이 안정되면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 SAFTA) 발효

- 2005년 12월 1일 서남아 7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SAFTA가 발효됨에 따라 역내 최빈국중의 하나인 네팔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장기적인 구조개선 효과와 역내 교역 증대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08년 인도가 방글라데시·부탄·네팔·몰디브 등 저개발국가에 대한 개방제외품목(Negative List)을 기존의 744개에서 500개로 축소함에 따라 개방제외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품목은 인도로 수출시 기본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네팔의 대 인도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다. 정책성과

□ 인프라개발 사업의 지속적 추진

- 201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교통망의 구축 및 유지 등 인프라개발 관련 지출을 전년동기 대비 47%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 정부 투자 및 국제기구 지원 확대로 농촌지역과 빈곤 지역의 도로망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ADB는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700km에 달하는 도로 구축 및 보수를 지원하였음.
- 네팔 정부는 전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수력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 상 수 지	-130	384	-228	-438	-185
경 상 수 지 / GDP	-1.2	3.3	-1.8	-2.7	-1.0
상 품 수 지	-2,008	-2,533	-3,428	-4,115	..
수 출	925	987	837	902	..
수 입	2,933	3,519	4,265	5,016	..
외 환 보 유 액	1,850	2,473	2,907	2,887	..
총 외 채 잔 액	3,570	3,726	3,709	3,827	3,769
총외채잔액/GDP	32.6	31.9	29.0	23.7	20.7
D. S. R.	4.0	4.1	3.2	3.9	3.7

자료: IFS, EIU, 및 OECD.

□ 상품수지 적자 지속

- 네팔은 낮은 생산성과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낮음에 따라 상품수출의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반면 상품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약 34억 달러로 GDP의 26.8%를 차지함.
- 2008/09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1.8%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상품수지 적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에 따라 2009/10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GDP 대비 2.7%를 기록함.
- 2010/11년에도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해외근로자의 국내송금 증가와 무상원조 확대에 의해 경상이전수지 흑자폭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폭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 유지

- 네팔의 외환보유액은 해외근로자 송금 및 지속적인 해외 원조 등에 힘입어 2010년 말 기준 약 2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6개월분의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임.

- 한편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5%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07년 32.6%에서 2010년 23.7%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왕정 폐지 후 공화제로 전환

- 2008년 4월, 내전 종식 후 연기되었던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 실시되어 네팔공산당(Communist Party of Nepal, Maoist)이 전체 240개 지역구 의석의 절반인 120석 및 9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면서 601석의 제헌의회 의석 중 217석을 확보해 네팔 제1당이 되었음.
- 총선 다음 달 소집된 네팔 제헌의회에서 출석의원 564명 중 560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왕정 폐지가 결의됨으로써 네팔 왕정이 막을 내리고 공화제로 전환하였음.

□ 총선,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의 기틀이 마련됨

- 왕정 폐지 후 주요 정당들은 행정수반인 수상과 상징적 의미의 대통령을 두기로 합의하였으며, 2008년 7월 치러진 대선에서 제2당인 네팔국민의회당의 바란 야다브(R. B. Yadav)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 대선 이후 8월 의원 투표에서 네팔공산당의 당수인 프라찬다(P. K. Prachanda)가 초대 수상으로 선출됨으로써 공화제 출범 후 초대 대통령과 수상을 확정지으며 새로운 정부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음.
- 2009년 토지개혁 및 공산 반군의 정부군 통합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프라찬다 수상이 사임한 후, 제헌의회는 나드합 쿠마르(Nadhav Kumar)를 수상으로 선출하여 신정부를 구성함.

□ 정국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름

- 공화제 출범 이후 총선과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의 기틀이 완성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
- 2010년 6월 나드합 쿠마르 전 수상의 임기 종료 후 관리정부 형태로 운영되었음. 지난 2월 제헌의회 투표에서 온건공산당 당수인 잘라나스 카날(Jhala Nath Khanal)이 수상으로 선출되어 연정 구성을 꾀하고 있으나 아직 정치적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2. 사회동향

□ 티베트인들의 독립시위 지속

- 네팔은 티베트지역과 에베레스트산을 두고 맞닿아 있어 망명 티베트인들에 의한 반중국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음.
 - 2008년 8월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과 동시에 카트만두에서 티베트인들이 중국 영사관 진입을 시도하며 현지 경찰과 충돌해 1,300여명이 체포되었음.
- 네팔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며 티베트인들의 반중국 시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네팔공산당 집권 이후 인도, 중국과의 관계 변화

- 전통적으로 인도는 정치, 경제적으로 네팔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나, 자국 내의 공산 세력과 네팔 공산 반군과의 연계가 동국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네팔공산당의 집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이에 따라 네팔 정부는 인도와의 양자 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한편 그동안 네팔과 인도와의 관계를 견제하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중국은 네팔공산당의 집권으로 인해 네팔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남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외채잔액 규모 미미

- 네팔의 총수출 대비 외채상환액 비중은 3~4%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외채 규모는 2010년 말 기준 약 38억 달러로 추정됨.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나 국외근로자의 안정적인 송금 유입으로 단기적인 외환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음.

2. 국제시장평가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는 네팔의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S&P, Moody's, Fitch사 등 주요 국제신용도 평가기관은 정치적 불안정 등의 이유로 평가하지 않고 있음.

* OECD : 7(2009. 4) → 7(2010. 4) → 7(2011. 3)

* Euromoney : 145/186(2009. 9) → 152/186(2010. 3) → 154/185(2010. 9)

* I. I. : 138/178(2009. 9) → 137/178(2010. 9) → 144/178(2011. 3)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공공부문에 대한 부보위험 제약조건만 가능
- 영국 ECGD: 인수 불가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tradius: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4년 5월 15일 (북한과 동일)

□ 주요협정: 영사협정(1969), 무역협정(1975), 이중과세방지협약(2001),
항공협정(2004), 문화협정(2005)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네팔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네팔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23.7	29.1	32.3	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 종이제품
수 입	1.0	1.1	0.9	기타섬유제품, 의류, 기호식품
합 계	24.7	30.2	33.2	

자료: 한국무역협회.

- 네팔과의 교역규모는 1974년 양국 수교 이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2010년 대 네팔 수출은 3,229만 달러, 수입은 91만 달러로 3,138만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대 네팔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12월말 기준 12건, 1,180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였음.

VI. 종합 의견

- 네팔은 제조업분야가 취약해 농업과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외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농업 부문의 성장으로 2009/10년 5.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정치적 불안의 지속과 전력 부족으로 농업 이외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어 2010/11년 경제성장률은 4.5%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낮은 세금 징수율과 세수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식료품 가격 상승과 석유 가격 인상으로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시현하고 있음.
- 공화제 출범 이후 총선과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의 기틀이 완성되었지만 평화 프로세스 이행에 별다른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이 있으며, 여야 간 갈등도 지속되고 있어 정국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외채잔액 규모가 미미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이 순 재 (☎02-3779-5705)
E-mail: soonjaelee@koreaexim.go.kr